

##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탁 계석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으로 세계 시장을 훑쓸고, 구글이 모토로라와 합병하면서 IT코리아가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IT강국으로까지 불렸던 우리 대부분의 SW회사들도 경영 악화로 워크 아웃에 놓인 상태다.

업계는 이 모두가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혼선이 빚은 결과라고 성토한다. SW의 경쟁력의 핵심이 기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해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예를 들어, 지금껏 소프트웨어를 지켜온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부족한 인력을 모두 빼가는 현실에서 할 말을 잃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단체로 파악하는 아날로그 사고방식은 우리 의식에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다. 비단 IT 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현실일 것이다.

가깝게는 겉만 화려하게 지어진 미술관, 공연장, 무너만의 오페라하우스 등 선진국과 비교하지 않아도 속을 들여다 보면 속빈강정의 궁색함이 그대로 드러

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소프트웨어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독창성이나 창의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곡, 변질되기가 일쑤다. 소설가, 화가, 작가, 작곡가, 발명가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

고 입체적인 무대를 만들어 판소리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결코 우리 힘으로 새울 수 없었던 정교한 무대와 작가의 상상력이 보태져 판소리의 새 지평을 열어 보인 것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쉽게 알아듣기 힘든 사설이나 문화적 차이를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궁금하지만 신선하고 충격적인 말랑말랑한 작가의 힘이 느껴졌다.

획일적이고 단순화된 문화가 범람하는 우리 공연 풍토에서 예술이 창의(創意)에 넘치는 사회를 끌어가려면 창의력과 소프

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다. 그 원인 규명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탁상공론에 그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 못하는 한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할 때가 왔다. 창작의 원천인 작가의 창작 에너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높은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저작권 횡포 등 고압적인 시각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바야흐로 한류 덕분에 우리 국악을 비롯한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반기운 일이다. '전통은 오래된 미래'라고 한다. 우리 것을 소재로 탁월한 문화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인 함민복의 풋(시)에서처럼 '말랑말랑한 힘' 즉 소프트웨어의 힘과가 절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의 대명사라 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치권에 메가본금 파장을 몰고 온 것처럼 문화계도 혁신의 인물이 나올 수 있으리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면 삼막한 소프트웨어 예산편성부터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스포츠의 힘은 유연성이 기초하듯 독에 힘을 주던 카리스마보다 한국인의 미소 같은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이길 날이 와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예술비평가협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말랑말랑한 힘 소프트웨어를 키우자

고 지원하는 진실 어린 창작 지원이 없다. 때문에 창작자들이 겪는 척박한 현실은 양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등 세계시장에서 큰 호응을 끌고 있다거나 걸그룹 단체에 있지만 우리 공연들이 국제무대 진출을 염두에 두고 제작에 팜 흘리고 있는 모습은 희망이다.

엊그제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수공가를 보았다.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아침 프赖어(Achim Freyer)가 1인 오페라라 할 수 있는 판소리에 스토리 배역을 나누

트웨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도처에서 펼쳐지는 예술행위들이 얼마나 관객들에게 예술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게 할 것인가. 지난 7월 국립오페라단이 개최한 한 토론회에서 밝힌 자료에는 우리 창작오페라가 300 편이 넘게 무대에 올랐지만 상설 레퍼토리로 정착된 작품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심각한 물음이 주어졌다.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일회성 공연에 그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며 안이한 제작 방식과 지원 시스템

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다. 그 원인 규명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탁상공론에 그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 못하는 한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할 때가 왔다. 창작의 원천인 작가의 창작 에너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높은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저작권 횡포 등 고압적인 시각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바야흐로 한류 덕분에 우리 국악을 비롯한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반기운 일이다. '전통은 오래된 미래'라고 한다. 우리 것을 소재로 탁월한 문화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인 함민복의 풋(시)에서처럼 '말랑말랑한 힘' 즉 소프트웨어의 힘과가 절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의 대명사라 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치권에 메가본금 파장을 몰고 온 것처럼 문화계도 혁신의 인물이 나올 수 있으리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면 삼막한 소프트웨어 예산편성부터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스포츠의 힘은 유연성이 기초하듯 독에 힘을 주던 카리스마보다 한국인의 미소 같은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이길 날이 와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예술비평가협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칼럼



허정

## 의료복지 정책 걱정된다

한다. 4~50년 전에는 지금은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각종 암이나 질환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의료인들은 선진화된 의학과 의료 기술을 밟잡을 세워가며 배우고, 선진국의 의학연수 등을 통해 의료발전에 노력한 결과 이제는 대부분의 의료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암 수술 및 치료 및 장기이식 수술 등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와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부 담당 소득의 15%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의 5~6%에 머물러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의료계는 유능한 의료인의 계속적인 양성과 새로운 의학 연구 등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노벨 의학상을 받아야 할 정도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의료의 수준과 장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투자가 필요 하지만 투자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기 이를 때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저수준의 일반도의 국가 정책으로 의료 발전이 저해되고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진다면 우리 의료는 10년, 20년 후 후퇴하고 말 것이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무상의료 문제를 제기해 내년 선거 때 공약으로 할 가능성은 많다. 이 문제는 국가 어느 정책보다도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에 해야 한다.

무상의료 문제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문제와 고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른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과는 비교되며 고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에덴병원 원장〉

우리 의료계의 추산으로는 현재까지의 노인의료비의 증가 속도를 추정해볼진대 10년, 20년 후 의료비 지출은 지금보다 5배 이상 증가되리라 추정된다. 이런 문제는 어떤 국가도 어떤 정책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의료를 부추기는 정책보다는 누구나 꼭 필요한 만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의 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느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운명에 관계된 문제가 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의료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할 의료인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번 잘못 세운 정책은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로 인한 결과는 후손에게 나타날 것이므로 더욱 신중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벨의학상을 받은 많은 의학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모든 국민들이 소외됨 없이 적정하고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에덴병원 원장〉

터들을 직접 초청해 작품이 구매로 이어지도록 노력했다.

유명 컬렉터인 하정웅씨가 첫날 천경자의 판화작품을 7점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작품 거래도 활발했다.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외 화랑의 작품 수준이 작품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짧은 준비기간이 문제였지만 내년에는 국제아트페어에 손색이 없도록 더 좋은 작품을 유치하여 할 것 같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에게 작품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화랑이 있는가 하면 일부 화랑들의 작품 수준은 문제였다. 광주의 대표급 화랑들이 예전의 자존심으로 광주 화단을 보여주기 기대하였다면 무리였을까?

내년에도 올해의 부족함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면 지방에서 열리는 최고의 아트페어가 되리라 확신한다.

또 국제 행사를 강조하기 위해 행사 명칭을 '아트광주'가 아닌 '광주국제아트페어'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대구 예술갤러리 대표〉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장비가 낡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변환시킨 얼굴이 실제와 많이 달라 실종자를 찾는데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에 비해 현재 미국의 시스템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들었다. 정부에서는 미국 등에

서 사용하는 선진국 얼굴변환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해주길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 널리 늘어만 가는 실종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는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

▲이태웅·광주시 서구 서창동

## 기고



이상래

## 대구 화랑의 '아트광주' 참관기

는 광주아트페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지난해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광주는 미술시장이 탄탄한 것도 아니요, 광주 컬렉터들의 타지역 작가 작품 구입이 극히 부진했다. 또 작품가의 할인요구가 엄청나 화랑의 입장으로서는 베리트가 없었다.

올해는 아주 짧은 기간과 예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해외를 비롯한 전국의 갤러리들을 섭외하여 성공적으로 유치한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행사 참가자로서 먼저 받은 감동은 이전에는 전혀 없던 일로서 다른 아트페어와 달리 기본 부수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참여 갤러리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주최 측의 성격에 맞는 화랑들을 초대했다는 점이다.

또 실험적이고 참신한 작업을 선보이는 대안공간을 유치하고 초대받는 화랑들에게는 유망한 짧은 화가들을 우선적으로 전시

부스에 배정하도록 유도했다.

수준 높은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 아트디렉터가 해외와 메이저급 국내화랑들을 섭외하여 성공적으로 끌어들였고 해외미술의 동향을 국내에 소개했다. 또 유럽 미술시장의 가장 일선에 있는 인물들의 초점강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수준 높은 아트페어로 업그레이드 시킨 점은 분명히 차별화된 전략이었다.

행사 첫날도 감동적이었다. 오픈식에 이어 국내·외 화랑대표, VIP, 컬렉터를 흘리며 데일리인 광주호텔에 초대해 만찬과 함께 사교의 장을 만들여 주었다.

행사의 부족한 예산을 타개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패션브랜드인 MCM을 스폰서로 초청했고, 고급스런 VIP 라운지를 운영한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또 광주시와 재단 측에서는 광주소재 큰 기업의 대표와 의사, 변호사 등 거물급 컬렉

터들을 직접 초청해 작품이 구매로 이어지도록 노력했다.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외 화랑의 작품 수준이 작품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짧은 준비기간이 문제였지만 내년에는 국제아트페어에 손색이 없도록 더 좋은 작품을 유치하여 할 것 같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에게 작품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화랑이 있는가 하면 일부 화랑들의 작품 수준은 문제였다. 광주의 대표급 화랑들이 예전의 자존심으로 광주 화단을 보여주기 기대하였다면 무리였을까?

내년에도 올해의 부족함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면 지방에서 열리는 최고의 아트페어가 되리라 확신한다.

또 국제 행사를 강조하기 위해 행사 명칭을 '아트광주'가 아닌 '광주국제아트페어'

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대구 예술갤러리 대표〉

## 실종자 찾기 '얼굴 변환 시스템' 장비 낚아 제구실 못해

안타깝게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끊이 지 않고 있다. 각종 영수증, 납입고지서 등에 실종자의 사진을 싣고 그들을 애하게 찾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아이나 부모 등 가족 중 한 명을 잃어버린 심정은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이메일 뒷부분에 실종 어린이나 노인들의 사진을 싣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당시 사진이 실려있다.

이처럼 애하게 실종 가족을 찾는 이들에 게 실종 직후에는 그러나 이런 사진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종된 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는 얼굴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신

체상의 특징이 아니면 찾아내기 어렵다. 요즘 DNA로 찾는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결국 비슷하게나마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그리나 시간이 흐르면 얼굴은 변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얼굴 변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실종 당시의 특성을 토대로 10년 후, 20년 후 변했을 얼굴을 가정해 그 나이에 맞게 얼굴을 형상화하는 방식이다. 범인 얼굴을 추정해 그리는 둘째주 기법을 실종자 가족 찾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이태웅·광주시 서구 서창동

## 시설